청년들의 꿈의 무대가 되다

익산시, 청년지원시책 8개 분야·14개 사업 추진… 취업 준비·정착 위한 지원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지원한다.

시는 8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55억 100만원(도비 포함)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 청년 정책의 허브인 청숲에서는 취업 상담이나 각종 정책안내, 회의실 대관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청숲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청년 문화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각종 취업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일하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급도 계속된다. 지난해 98%의 높은 만족률을 보였던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청년자산형성 통장을 통해 자립 자금 확보도 돕는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최대 15만원의 동일 금액을 시에서 매칭해 3년 만기 후 적립금을 지급한다.

청년자산형성 통장을 통해 쌓인 적립금은 결혼자금, 주거비, 창업자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목돈으로 쓰이게 된다.

/익산=이득훈기자

청년뜰, 365일 운영되는 메타버스 공간 오픈!

군산시, 2022년 사업설명회

10일 군산 지역 청년의 취·창업 지원기관이자 청년활동의 소통·교류의 거점인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의 '2022년 군산시 청년뜰 사업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 및 MZ세대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digital life style)에 맞게 메타버스(metaverse) 화상회의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통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 청년뜰 공간 소개, 2022년 군산시 청년뜰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2년 청년 프로그램은 5개 영역 △청년정책 △청년회복 △취업역량강화 △사회참여 △청년문화조성으로 구성됐다.

핵심과정으로 청년정책플랫폼, 청년희망멘토링프로젝트, 군산청년진로캠퍼스, 청년주거 및 생활경제교육 등 총 11개의 과정이 운영된다.

창업 프로그램은 3개 영역 △실전창업교육 △창업문화조성 △창업인프라 구축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 군산청년창업캠퍼스, 군산시 창업가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원스톱 창업컨설팅, 군산시 창업가 시장개척단 등 총 9개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중 청년 프로그램의 집단·개인 상담을 지원하는 '청년희망멘토링'과 창업 프로그램의 (예비)창업가를 위한 1:1 맞춤형 매칭 창업컨설팅인 '원스톱 창업컨설팅'은 상시 운영 중이다.

10일 '군산시 청년뜰 사업설명회'를 기점으로 오픈되는 청년뜰 게더타운은 이후에도 상시 운영된다. 게더타운은 청년뜰 3·4·5층 3개 층을 구현해 360도로 촬영된 실제 공간 이미지를 통해 실제 공간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또한 2월 한 달간 이용자들은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된 청년뜰 공간에서 '단어찾기(글자가 숨겨진 보물을 모아 단어를 완성하는 게임)'와 '청년뜰에 가면(청년뜰 마스코트 래비, 고미, 뜨리가 있는 공간 명을 맞추는 게임)' 등의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 증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특화된 청년 사업추진을 통해 청년 자립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히 "청년뜰을 중심으로 군산시 청년과 창업가들에게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 서비스' 호응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익산시가 운영 중인 우리마을 돌봄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가는 익산만의 틈새 돌봄 서비스다.

만 6~12세(만10~5세 공동육아방) 아동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마을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공동체를 구성해 직접 아이를 돌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재능기부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를 모집해 현재 총 4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직접 참여한 안전한 돌봄 서비스 덕분에 지금까지 매월 약 45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익산시는 올해 추가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 또는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 2개소를 공모한다.

마을 또는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돌봄 사업 취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33㎡ 이상의 돌봄 공간 제공이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단체)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정현율 시장, 현장 점검… 선재적 대응으로 주민 불편 해소

정헌율 익산시장이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정 시장은 9일 송학동 영무예다음 3차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 시장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전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최근 광주 주상복합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현장 주변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16개소이며 △공사장 현장 주변 지반 현황 △지하층 흙막이 변이 유무 △인근 시설물 안전 상태 △통행지장 및 배수 상황 △기타 시민 불편 요소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 통해 시정할 예정이며,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빠르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점검 외 추가로 시민 불편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안심식당 지정 희망업소 모집

군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 지정 희망업소를 모집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심식당 지정은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희망업소 50개소를 지정한다.

지정업소에는 표지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물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 취급업소이며,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21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개인접시, 집게 등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비치 등 4대 과제를 지켜야 한다.

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외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213개(2020년 93개소, 2021년 12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향후 주민 반응 및 영업장 이행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안심식당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해당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 철저히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사랑장학재단, 관내 대학 진학 시 장학금 지급

익산시가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올해도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익산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 원광대, 원광보건대학, 전북대 익산캠퍼스 등 익산 소재 3곳 관내 대학 신입생에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익산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관내 대학교 진학 신입생으로 올 3월에 장학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이사회에 승인돼 처음 지급이 시행됐으며 올해도 2~3월 중 공고를 통해 3월 새 학기가 시작 후 대상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익산시 또는 (재)익산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익산사랑장학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영아수당 도입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군산시는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미만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신설된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출생하는 가정양육 영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만 23개월까지 월 3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만 7세미만 아동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원을 만 8세미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인년,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기자